

##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동향 개요

### 목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격렬해지다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외부 영향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압박하다 -----	3
인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다 -----	4
정부, 군중, 그리고 반란자들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에 처한 교회 -----	5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	7
니카라과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다 -----	9
북한이 1위 자리를 재정립했다 -----	10
작은 희망의 불빛 -----	11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격렬해지다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폭력은 오래동안 대사막 이남 박해 양식의 분명한 특징이었다. 이 동향은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심해졌다.

박해 정도가 “높음”이거나 그 이상인 종합점수를 기록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26개국 중 15개국은 폭력이라는 하위 범주에서 “극심히 높음” 점수를 기록했다. 일년 전, “극심히 높음” 폭력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13개였다.

2024년 목록에서 전반적으로 폭력이 오른 원인은 교회와 기독교 가옥 및 사업에 대한 공격의 증가이다. 강도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예를 들어, 교회 및 학교와 같은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에티오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인 소유의 사업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몰수당한 건수가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박해 정도가 최소 “높음”인 사하라 사막 이남의 26개국 중 18개국에서 최소 4,606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2023년 9월 30일에 마친 2024년 목록을 위한 12개월의 보고 기간 동안 죽임을 당했다. 26개국 중 나머지 여덟 개 국가에서는 살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나이지리아는 월드와치리스트에 등재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

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살인 건수 10개 마다 9개를 차지했다. 분쟁 중에서, 그리고 분쟁의 여파로 폭력의 영향력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가운데서 살인 건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명적인 공격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쫓겨난 점은 반기독교 폭력의 중요한 척도이다. 스위스 소재의 국내난민감시센터와 유엔난민기구의 정보는 2022년 말에 3,450만명이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최소 "높음" 정도의 박해를 겪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강제로 내쫓긴 자로 (난민, 그리고 실향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비쳤다.

3,450만명 중 1,620만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되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박해 정도가 최소 "높음"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6개국에서 살아가는 5억 3400만명의 기독교인 중 3%에 해당한다.

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상황은 복잡하고 각각의 사건들은 지역 상황의 광범위한 영역에 따라 발생하지만, 전역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 부류들의 착취는 공통된 맥락이다. 한 예로: 말리에서 이미 악화되던 안보 상황은 프랑스 군이 2022년 11월에 마침내 떠나자 국제 안보 구조의 외양을 잃었다. 그리고 말리 유엔평화유지군(MINUSMA)은 2023년 12월말까지 완전히 철수해 지하디스트의 공격을 위한 여지를 더 남겼다.

또 하나: 2023년 니제르와 가봉에서 정권 교체를 강제한 군사 쿠데타는 2022과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전복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군사 정권은 종교 다원주의에 언제나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니제르에서는 쿠데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정권에 임명했다. 전복은 대륙에서 긴 역사를 갖지만, 그들의 최근 활동 재기는 더 폭 넓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내비쳤고 이는 종교 단체들에 있어 우려스러운 동향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치와 안보의 균열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전역에 걸친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 지하디스트 활동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스로 2023년 1월 이래 지하디스트 무장단체에 의한 "살인, 강간, 그리고 마을에 대한 약탈이 말리 북동부에서 만연함"을 기록했다.

이슬람국가(IS) 집단 및 알카에다와 연계된 집단들이 가장 현저하게 확산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는 이슬람국가(IS) 집단에 동맹을 맹세한 이슬람 연합민주군에 있어 안전한 곳이 되었다. 연합민주군은 우간다를 위협롭게 하고자 했고, 수년 간 콩고 북동부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을 표적 삼았다. 2023년 1월에는 연합민주군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카신디시 경계 지역에서 예배 중에 폭탄을 폭발시켜 최소 12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십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나이지리아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는 보코하람 무장단체 구성원 수 천명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이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북동부 및 나라 안의 다른 많은 지역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에 아득히 가려졌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풀라니 무장단체들

에 의해 대개 기독교인 공동체에 대한 습격, 살인, 납치, 성폭력, 그리고 생계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폭력은 기독교인들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2023년 4월 17일 - 7월 10일 기간에 플라토주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가해진 일련의 공격은 나이지리아에서 잦은 폭력 급증의 한 예다. 파라-말람평화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이로 인해 315명의 기독교인과 31명의 무슬림이 목숨을 잃었다. 수 주 동안 이어진 공격의 결과로 무려 6,603개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 18,751명이 내쫓겼는데 거의 다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는 0-5세 사이의 고아 6,066명이 있다. 국내 실향민들은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교회 협회 (COCIN-LCC)가 주최한 14개의 수용소에 임시로 머물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도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특히 표적이 되지 않더라도, 이들은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카메룬과 같이 지역 내에 더 큰 충돌 가운데서 더 취약하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상 처벌 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쉬운 목표물이다. 이 같은 "편의에 의한 박해"는 이들과 가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장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외부 영향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압박하다

지역 내 독재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것을 발견했다.

사회 기반 시설, 기술, 훈련에 있어서 아프리카 내 중국 정부의 역할 증대는 대륙에서 독재 정권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하고 있다.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한 개발학연구소에 따르면, 아프리카 정부는 감시기술에 연간 10억을 소비하고 있다. 가장 큰 고객은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의 연방정부와 국가 내 독립 주이다. 보고는 유럽과 미국도 이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했음을 언급했지만, 그 점은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내주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모델을 직수출하기 위한 첫 시장으로 아프리카를 택했다. 중국 공산당은 탄자니아의 새로운 캠퍼스에 베이징 일당 지배와 사회경제 계획 융합의 정치 지도자들을 훈련하도록 전념할 첫 해외 학술원을 열었다. 아프리카 6개국의 정당들이 학술원의 첫 간부단을 구성했다.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외부 영향은 러시아, 더 명확히 말하면 러시아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널리 추정되는 민간 용병 바그너그룹에서 오기도 했다. 이 집단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해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잔인함을 포함해 극단주의 활동을 진압하기 위한 무자비한 전략으로 알려진 바그너그룹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거점을 마련했다.

바그너그룹은 사헬지방, 특히 부르키나파소, 말리,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느껴졌거나 계속 느껴지는 다른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단체들 중 하나로 드러났다. 그들의 영향력은 기독교인들의 시민 공간을 상당히 억압했다. 정부의 부당함 또는 바그너그룹이 자행한 잔혹성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 집단이 범한 잔혹 행위들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때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본성을 언급했다. 테러 단체들과 싸우고자 하는 공통의 갈망이 분명한 가운데서 바그너그룹은 민간인을 소모 가능한 실체로 여겨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다. 지정학적 복잡성은 특히 기독교인, 그 중 바그너그룹의 행동에 반대하는 서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개신교도들에 어려움의 단계를 더한다. 바그너그룹의 필수적인 경제 분야, 특히 광산업에 대한 조작이 아프리카 국민들로 하여금 증가한 혼란과 불안정에 취약하게 두면서 의한 그들에 의한 위협은 단순히 인권 침해 너머까지 확장된다.

## 인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다

광대한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동향이 뒤섞여 있다.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악화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향상되었다. 그래서 국가 전역에 걸쳐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감안했을 때 결과는 단지 1점 오른 점수를 나타냈다. 총점에 미치지 못해도 인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더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는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인도의 기독교인을 10명으로 총계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는 17명, 그리고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는 160명을 기록했다.

폭력 점수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범주에서 증가가 감지되었다: 기독교 교회, 학교, 그리고 기타 기관에 대한 공격 건수는 2022년 목록에서 91건을; 2023년 목록에서 180건을; 그리고 2024년 목록에서 5,900건 가까이 기록했다. 공격을 입은 기독교 사업은 각각: 2건, 37건, 그리고 1,572건이다.

가장 극적인 것은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집에서 내쫓긴 인도의 기독교인 수가 62,00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380명을 기록한 2022년과 834명을 기록한 2023년에서 기하급수적인 급등이다.

폭력과 내쫓김이 급증한 중심지는 2023년 5월에 다수인 메이테이족과 소수인 쿠키족 사이의 교전이 시작된 마니푸르 북동부 주였다. 부족을 지정부족에 포함하도록 하는 메이테이족과 이것이 더 크고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부족으로 하여금 쿠키족 지역에 부딪치게 할 수 있어 반대를 주장한 기독교 다수의 쿠키족이 부딪혔다. 논쟁에서 흘러나온 폭력 가운데서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계속되었고 쿠키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뒤엉켰으며, 수백 개의 교회들, 심지어 메이테이족 성도들

을 둔 교회들도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쫓겨났다.

유엔은 성명문을 통해 “대부분 쿠키 소수민족 출신의 모든 연령의 여성과 소녀 수백명을 겨냥한 젠더 기반 폭력의 이미지. 제기된 폭력은 윤간, 거리에서 여성들을 나체로 끌고 다니는 것, 죽음을 초래하는 심한 구타, 그리고 살거나 죽은 채로 불태우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포를 언급했다.

마니푸르주와 인접한 미조람주에 있는 난민 수용소 상태가 악화되었다. 유엔은 더 확실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도 정부는 더디게 움직였다. 테러방지 부대는 소수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보고가 있고 모든 상황은 온라인 상의 잘못된 보도와 통신 서비스의 중단의 혼란 가운데 빠졌다.

마니푸르의 혼돈 사태는 국가의 중앙 정부와 큰 부문을 나타내는 탄탄한 힌두 민족주의 익숙한 배경에 맞서 발생했다. 통치하는 바라티야 자나타당 (BJP)과 지도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보호 지붕 아래서 굉장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국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순수 힌두교인 인도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폭력 사용을 피하지 않는다. 힌두교 배경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끊임없이 힌두교로 돌아가라는 압박 아래 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는 마디아 프라데시주와 차티스가르주에서 적대감의 꾸준한 증가 가운데서 반기독교적 압박의 흔적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에 차티스가르주의 한 마을 주민들은 70 가정의 200명 가까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떠나도록 최후통첩을 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구타를 당했다. 또 2022년 말에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경찰은 목사 아홉 명을 “개종 활동” 죄로 체포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딸과 사위의 결혼 피로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강제 종교 개종을 불법으로 하는 인도의 11개 주 중 한 곳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탄압의 법적 구실을 제공하는 반면 힌두교도들에 대한 동등한 기소는 보기 힘들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나라의 “지정 카스트” 범주의 달리트로 널리 알려진 구성원들이 무슬림과 기독교인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숙고하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정치적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민감한 문화적 이슈이다.

2024년 인도 총선은 불안만 더할 것이다. BJP는 중앙 정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세에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연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 군중, 그리고 반란자들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에 처한 교회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41점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당한 10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르완다, 수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그리고 앙골라이다. 이 국가들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타 공공 기독교 건물들의 합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2024년 목록에 등재된 전체 78개국의 14,766 곳 가운데서) 14,129곳을 차지했지만, 연구원들은 수 천개가 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겼다. 중국과 인도는 교회 공격 또는 폐쇄가 각각 10,000곳과 2,228곳으로 추정되어 1위를 차지했다.

교회에 대한 폐쇄 건수는 소위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중국 환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자주 있었다. 처음에 '가정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소규모의 등록되지 않은 가정 예배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곳들이 크게 성장해 호텔 시설 또는 사무실 임대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임을 했다. 매주 흔히 수백, 심지어 수천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들에 출석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시행된 조치를 이용하는 당국들에 의해 그러한 자유는 끝났다. '가정교회'는 이제 시초로 돌아가 눈에 덜 띄는 가정 예배 모임으로 무수히 갈라졌고, 많은 곳에는 목회자 리더십이 거의 없고 자원이 많지 않다. 그와 동시에 국가가 승인한 교회들의(TSPM 삼자애국운동) 많은 장소들은 어쩔 수 없이 폐쇄되거나 더 큰 교회들과 합쳐졌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더해 TSPM의 새로운 규정들은 2023년에 시행되어 실제로 공산당이 기독교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어떻게 과감히 재정립하고자 하는지 (특히 27조, 36조, 39조, 40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교회 공격은 공격적인 군중에 의해 자행된다. 한 예는, 2023년 5월 4일에 마니푸르 임팔의 추라찬드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이다. 임팔의 도미니크 루몬 대주교에 따르면, 2023년 5월 4일 사태 발생 후 처음 36시간 동안 249개의 메이테이 교회가 (대개 기독교인) 쿠키족이 아닌 메이테이족 힌두교인들과 사나마히즘 신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루몬에 따르면, 교회를 겨냥한 메이테이 군중들은 아람바이 텅골과 메이테이 리퐁 자경 단체들을 통해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쿠키족 주민들은 사태 발생 후 처음 36시간 동안 같은 군중에 의한 극심한 공격 아래 있었고, 집에서 도망했다. 따라서, 메이테이족 가운데 극단주의 부류들이 자신들과 (메이테이 기독교인) 쿠키족을 공격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니제르에서 교회 또는 공공 기독교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대개 기독교 공동체를 습격하거나 침범하는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이 국가들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거나 버려진 교회와 공공 교회 건물들은 줄잡아 950곳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750곳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공동체에 대한 공격에서 침략자들로부터 도망한다. 그들의 가옥, 사업, 밭, 교회, 그리고 공공 기독교 재산이 (예를 들어 묘지) 버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다. 강제 내쫓김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 건수를 나열한

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 수 전체	1,099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이 5명 이상	323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이 10명 이상	157

어떤 상황에도, 이는 5명 또는 그 이상의 기독교인 희생자를 낸 사건 한 건당 (위 표를 참고)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 또는 공공 기독교 건물 최소 2곳 또는 3곳이 공격을 입고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클수록 수치는 더 높았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동안 교회와 공공 건물 최소 750곳이 공격을 당했다.

알제리는 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국가들을 나열한 목록에서 훨씬 밑에 있지만, 그곳에서 계속된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복음주의개신교협의회 (개신교 상부 기관) 소속된 교회 46곳 중 2023년에 남아 있는 교회는 단지 4곳이었다. 몇몇 독립 교회들도 모임을 중단했다. 이와 같은 정세는 알제리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심문하고 “승인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또는 유사한 범죄로 그들을 기소해 토착 개신교 교회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자 2006년 법 이용 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드러났다. 심문을 받는 가운데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폐쇄하라는 구령을 받았다. 과거에는 몇몇 교회들이 법정에서 항변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이는 새로운 동향이다. 교회 지도자들 및 교회에서 활발한 이들 모두해서 최소 18명의 기독교인들이 (집행 유예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부 조치의 결과로, 압박은 남아있는 적은 수의 교회들이 2024년에는 모든 가시적인 활동들을 전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늘어났다. 알제리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리아 내전은 이미 국가 내 기독교인의 존재가 흩어지고 줄어들게 만들었다. 2023년 2월에 발생한 치명적인 지진은 불안정한 상황을 더 심각하게 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급속히 퍼진 나라는 결코 시리아 만이 아니었다.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알제리의 점수는 급격했고 튀니지는 독재의 길로 더 돌아갔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발산한 7.8 규모의 지진은 세상의 시선을 시리아로 집중시켰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시리아의 점수는 1점 올랐고, 이는 그다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지만 나라를 “극심한 박해” 단계로 밀어 넣기에는 충분했다. 전쟁의 다방면 폭력을 피해 붕괴된 경

제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폭력과 이슬람 압박의 만만 한 표적이 되었다.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와 이슬람국가(IS) 단체의 부류들처럼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이슬람 과격 분자들은 공격 또는 납치에 취약한 지도자들의 역사적 교회들을 허물거나 장악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 중 집에서 내쫓기지 않은 이들은 신앙을 표현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에 따라 정권의 태도가 결정된다. 모든 기독교 교회가 압박을 받지만,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은 침례교와 펜테코스트파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 보다 권리를 옹호할 지위를 더 누리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충돌에 걸려들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린에서 터키의 지지를 받는 병력이 쿠르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다. Action for Humanity에 따르면, 참사의 결과로 전쟁의 폭력을 피해 최소한 번 난민 캠프에서 거주한 이들 10명 중 9명이 다시 한번 난민이 되었다. 유니세프 책임자는 진동은 “더 많은 집, 학교, 그리고 아이들의 놀 곳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가정들이 느끼는 안전감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어 기독교인 아이들은 국립 학교 - 이슬람 학교에 출석해야 했기에 아이들은 이미 이 같은 충격에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지진 이후 몇 주 만에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가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슬람국가(IS) 단체의 부류들이 공격을 개시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기독교인 가정들은 또 다시 충돌에 휘말려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슬림 동포들이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과 모국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중동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인의 삶 또한 견디는 것이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 튀르키예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과 싸우기 위해 이라크의 기독교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에 대한 다년간의 군사 침입을 계속했다. 싸움은 폭력을 피해 도망한 기독교인들이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빈약한 정치 영역마저 점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국가(IS) 단체들의 이라크 북부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기독교인들의 준군사적인 단체가 바빌론 운동으로 알려진 정치 활동으로 바뀌었고, 이는 이라크 의회 329석 중 기독교인들을 위한 의석 5자리를 전부 차지한다. 현지 기독교 세력으로 알려진 바빌론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 공동체에서 모집했고, 이라크 시아파 정당, 준군사적인 바르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한다. 그 후로 부패와 다른 불미스러운 관행으로 비난을 받았고 지도자는 미국에 의한 제재로 이어졌다.

갈등의 중심에는 이라크 대통령이 루이스 사코 추기경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한 대통령령을 철회해 주교로 하여금 총대주교좌를 바그다드에서 쿠르드 자치구 아르빌로 옮기도록 했다. 사코는 그



를 오래 살던 곳에서 떠나게 만든 것은 바빌론 운동의 지도자 라얀 알-킬다니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다. 사코는 그가 교회 건물과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라얀 알-킬다니는 이 주장들을 일축했다.

최종적으로는: 궁지에 몰린 기독교 소수집단에 대한 압박이 더 가해졌다.

2023년 이라크 선거법 개정안은 승리한 주요 정당들에게 민족 및 종교적 소수집단들을 위한 소수의 의석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이러한 압박을 증가시켰다. 다양한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 대표자와 그들의 권익 수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023년 11월 의회 선거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스웨덴에서 코란이 불태워지고 나서 지난 해 동안 이라크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다.

기독교인 두 명이 소셜 미디어에 온라인 메시지를 게시하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한 것과 같이 쿠르드 자치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더 증가했다. 그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명은 심리 중인 사건이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나라를 떠나야 했다. 두 사례는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졌고, 이는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이어졌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정부는 2023년에 복음주의개신교협의회와 관련된 교회들을 폐쇄하기 위해 2006년 법 이용 운동을 강화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폐쇄된 가운데서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한 공간은 과거에 비해 더 축소되었다.

리비아는 월드와치리스트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 2023년 5월에는 몇몇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두 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이 강제로 추방당한 큰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이주민 수백 명이 리비아 정부당국에 의해 임의로 체포를 당했다. 그들 중 몇몇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서 만연한 인신매매, (성적) 학대, 고문, 그리고 갈취에 대한 보고들이 수년간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 이민자들의 신앙은 이 같은 학대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대부분이 그들의 신앙을 엄격하게 비밀로 지키도록 했다.

튀니지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재로 빠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 2021년 비상 통치권을 확고히 한 뒤로 사이에드는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판사를 해고하고, 그리고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에는 중요한 야당 지도자가 체포되었고, 사이에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이 튀니지에 “범죄와 폭력”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인종적 함축이 심한 연설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로 인한 민중의 분노가 튀니지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돌려졌고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다른 이들은 나라를 떠났다.

심지어 다른 어떤 중동 국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에서 크게 동떨어진 레바논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특혜가 줄고 국가 생활에서의 영향을

목격했다. 교회와 기독교 소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악화되어가고 있는 경제와 결합된 상황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니카라과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니카라과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년 전 월드와치리스트 50위에서 20위 상승해 30위를 기록했다. 니카라과의 점수는 8.3% 증가한 5점 이상이 올랐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및 모든 월드와치리스트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급속한 증가이다.

쿠바는 월드와치리스트 국가들 중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상위를 기록했고 니카라과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공산주의 독재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맞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박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니카라과이다.

니카라과의 점수가 급증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적의가 증가한 산물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이제 목적에 맞는 법체계로 둘러싸여 감시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다. 성직자이든, 세속적이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체포된다. 교회와 관계된 대학들과 다른 단체들은 등록이 취소된다. 기독교 소유의 재산과 언론 매체들은 점령을 당했다. 가톨릭 신부와 주교는 간첩 행위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수녀와 다른 교회 대표자들은 강제로 추방되었다. 공공 장소에서 일부 기독교 기념행사는 금지되었다. 심지어 니카라과 정부는 교황청에 대사관을 폐쇄했다.

어쩌면 정부의 탄압 운동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2022년 말에 니카라과의 시민의 자유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마타갈파교구장 로날도 알바레즈 주교에 대한 여러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의 추방을 거절한 후 2023년 2월에 2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했다. 국영 방송에서 판결을 낭독한 치안 판사는 주교가 “나라의 반역자이자 전부 실제 경쟁에서 니카라과 사회와 국가를 해치도록 저질러진 국가 보전 약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허위 보도 선전, 행사 방해, 심화된 반항 또는 권위를 멸시한 죄에 대한 공동 가해자로서 유죄라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알바레즈의 유죄 선고, 니카라과의 악명높은 모델로 교도소에서의 구금, 그리고 전반적이고 특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정권의 공격에 전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인 규탄을 발표했고, 미 국무부는 연루된 니카라과 고위 관리들의 비자에 제한을 가했다. 미주지구 상임이사회는 오르테가가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국제규약에 대한 이전의 약속에서 니카라과를 저버렸음을 비난했다. 그리고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니카라과 인권전문가 그룹은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만연한 인권 침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이른다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니카라과의 탄압은 2006년 선거, 그리고 특히 2018년 시도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단속 이래 오르테가 정권의 갈수록 더 독재적인 통치에 들어맞는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메시지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니카라과는 월드와치리스트에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동향을 선도하고 있지 않고, 단일 정당의 공산주의 쿠바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도 않다.

## 북한이 1위 자리를 재정립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월드와치리스트에서 2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고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기에 가장 힘든 단일 국가를 차지했다. 그러다가 2022년 목록에서는 2021년 여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바로 뒤이어 2위로 내려갔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나라를 떠날 수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악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약화된 후에 – 결코 그친 것은 아니지만 – 북한이 다시 목록 맨 위로 이동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했고, 익숙했던 연간 양식은 저절로 재정립되었다.

또한 이곳 환태평양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익숙하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8월에 평양이 서쪽에 있는 이웃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할 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후 몇 주 동안 중국은 탈북자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단체는 중국 정부당국이 8월에 북한주민 80명을, 그리고 9월에 추가로 40명을 더 강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0월 초에 – 2024년 목록을 위한 12개월 동안의 월드와치리스트 정보 수집기간이 종료된 직후 – 중국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다섯 번의 수송대를 보낸 것을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이 보고는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한국인 지하교회 선교사”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단체는 조국으로 돌아간 전체 탈북자 수는 무려 600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송환을 확인했지만 관련된 탈북자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법은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성인 송환자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구금되고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그리고 처형에 직면할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신자들을 향한 정권의 무관용 정책은 항상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게 하는 강력한 이유였지만, 송환된 북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동안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나서 국경을 넘고자 하는 시도는 더 이상 흔하지 않다.

월드와치리스트가 측정한 기독교인 삶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가해진 압박은 가장 높은 정도를 기록하고, 폭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드와치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종교적 신앙에 대한 압박은 마치 지구의 자전과 같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끊임없는 탄압을 뚫고 나오는 신앙의 새싹이다. 예를 들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가족 구성원 다섯 명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2023년 4월 뉴스 기사는 사실 자체 보다는 대중에게 매우 빠르게 전해진 것을 주목할 만했다.

## 작은 희망의 불빛

이 요약에는 말리 기독교인의 삶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2023년 6월에 말리 유권자들이 새 헌법 채택에 대한 국민 투표를 승인한 것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민정 복귀 및 2024년에 새로운 선거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졌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일련의 무역 및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 군사 정부는 민정 복귀를 지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 헌법에는 나라 안의 기독교 소수집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

인도의 기독교인 삶에 대한 많은 압박 가운데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인도국민회의가 카르나타카주 2023년 봄 선거에서 힌두 민족주의 인도인민당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국민회의 주도의 새로운 정부는 소위 “de-saffronization drive”를 착수할 작정이다. 신임 주장관 프리안크 카지는 “학교 교과서 개정과 반 개종법과 같은 이전 BJP 체제 하에 시행된 많은 지시와 법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되거나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의 점수는 3점 올라 월드와치리스트 58위에 들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목사들이 그들 헌법상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교육하는데 있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전했고, 이는 일부 사례에서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막았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들 중 한 곳인 라오스에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제가 연구원으로 일해온 모든 세월 동안 성장하는 교회와 커져가는 대립의 연관성이 이렇게까지 분명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더 높은 점수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예측하는 성경구절들이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